

中國古典에서 배우는 經營處世學 (I)

鄭 鉉 祐

〈淑大教育大學院 教授 政治學博士〉

① 꽃은 半開한 것을 감상하고 술은 微醉 상태로 마시다 (榮根譚)

꽃을 관상(觀賞)하려면 반쯤 피었을 때가 보기 좋고, 술을 마시려면 거나하게 취하여 기분 좋은 때 그만 마시는 것이 좋다. 만취(滿醉)하여 횡설수설하는 음주법은 최하라고 했다.

《채근담(榮根譚)》은 이런 말을 한 다음, 다시 아래와 같은 코멘트를 덧붙이고 있다.

“영만(盈滿)을 이룬 자는 이것을 깊이 생각하라”.

만족(滿足)의 경지에 있는 사람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한 구절은 꽃의 관상법과, 음주법을 설명하면서 실은 인생이 살아나가는 방법을 설교(說教)하려는 것이다.

무슨 일이든, 뜻한 바대로 만족을 얻은 경우에는 오만해지거나 고집통이가 됨으로써 도리어 남들로부터 미움을 사는 수가 많이 있다.

항상 분수를 지키고 겸손해야 한다. 사람에게 가는 향상심이라는 것이 인간을 발전시키는 작용도 하지만 반대로 파멸시키는 역할도 하는 탓에 적정선의 억제력이 필요하다.

② 明이 極하면 察이 지나쳐서 의심이 많아진다.(近思錄)

<명(明)>은 통찰력(洞察力)이다. 흔히 <머리

회전이 빠르다>는 말들을 하는데 그런 뉴앙스가 이 경우의 <명>과 가깝다.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조건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 <명>도 너무나 지나치면 사소한 일까지 눈에 뜨이게 됨으로써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며 의심만 하게 된다는 것이 표제의 말이다.

이 말은 인간학(人間學)의 진수라고 해도 좋겠다. 특히 사람들을 거느리고 일을 해야 하는 리더에게 있어서는 깊이 자계(自戒)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점이기도 하다.

<명>은 리더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하고 필수조건의 하나이다. 이것이 없으면 조직 속에서 키잡이의 역할을 할 수 없겠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과 함께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결단력>이다.

<찰(察)>이 지나쳐서 의심만 하게 된다면 혼란을 일으킨 뿐이어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리더로서는 실격(失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③ 天下에 忌諱하는 것이 많으면 백성은 점점 빈곤해진다 (老子)

이것도 안된다. 저것도 하지 말아라하며 금령(禁令)이 쏟아져나오고,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백성들의 생활은 점점 더 가난해진다는 말이다.

관리(管理)를 심하게 하고 바삭 조이면 사회 전체가 숨막히는 분위기가 되며 사람들의 창조성(創造性)도, 그리고 사회의 활력도, 잃게 되고만다. 그 결과 생활수준도 생각한 것처럼 향상되지 않게 마련이다. 이것은 사회주의(社會主義) 국가들이 겪어온 현실을 보면 수궁이 같 것이다.

이 노자(老子)의 주장을 정치에 비유하면 행정력이 민간경제활동에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규제가 심하면 시장경제는 위축되고 경제는 활기를 잃게 된다. 행정은 민간활동이 스스로 자생력을 갖고 움직일 수 있도록 민간활동에 마껴야지 지나치게, 까다롭게 규제하거나 인허가업무가 복잡하여 오히려 국민경제를 어렵게 한다는 얘기도 된다.

《노자는 이런말도 하고 있다. 기술이 진보되면 진보될수록 사회는 어지러워지고 인간의 지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불안한 사건이 끊이지 않으며 법령이 생기면 생길수록 범죄자는 늘어난다》 현대사회와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한 것이라고 하겠다.

④ 사람을 판단할 때는

眸子보다 좋은 것이 없다 (孟子)

상대방 인물을 판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의 눈을 관찰하는 것이라는 뜻의 말이다. <모자(眸子)>란 눈동자이다. 맹자(孟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눈동자는 그 악(惡)을 감추지 못한다. 마음이 바르면 그 눈동자는 맑다.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눈동자는 흐려진다. 그 말을 듣고 그 눈동자를 보면 어찌 그 사람의 됃됨이를 파악할 수 없겠는가?

흔히들 <눈은 마음의 창(窓)>이라고 한다. 마음이 더러워져 있으면 눈도 탁하고, 마음이 비뚤어져 있으면 자연히 그 눈에 나타난다고 한다. 맹자가 한 말에도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 눈만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은 어쩐지 졸속(拙速)하다고 생각이 안드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맹자 역시 <그 말을 듣고……>라는 한 구절을 덧붙인 것이리라. 즉 눈을 관찰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말썬의 말을 듣고 판단하면 틀림없다는 것이다.

평소에 착하고 바른 마음과 언어사용으로 주의사람에게 좋은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 선행에 힘써야 하겠다.

⑤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 (禮記)

공자(孔子)가 제자들을 데리고 태산(泰山) 기슭을 지나갈 때, 있었던 일이다. 한 여인이 묘(墓) 앞에서 훌쩍훌쩍 울고 있는 것이었다.

공자는 그 울음소리에 잠시 귀를 기울이다가 제자를 보내어 울고 있는 연유를 묻도록 하였다.

“부인, 듣건대 아주 슬피 우는데 대체 무슨 이유로 그렇게 우는 거요?”

제자의 물음에 그 부인은 대답했다. “네, 지난 날 이곳에서 시아버님이 호랑이에게 잡혀먹혔고, 그 다음에는 남편이 또 호랑이에게 잡혀먹혔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아들녀석까지 호랑이에게 잡혀먹혔지 뭐니까.”

“그럼 왜 이곳을 떠나지 않는 게요?” “네 이곳에 살고 있는 한, 그 무서운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이 말을 전해 듣고,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너희들 이 여인의 말을 깊이 명심해 두도록 하여라. <가혹한 정치는 사람을 마구 잡아먹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것>을…….”

위정자는 공정하고 책임있는 정치를 통해 국민의 생존권과 각개인의 기회를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정치에 힘써야 한다. 경영자나 관리자의 입장에서든 마찬가지이다.

⑥ 앞 수레가 뒤집어진 것은

뒷 수레의 경계할 바다 (漢書)

한(漢)나라시대에 가의(賈誼)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그가 섬기던 문제(文帝)에게 헌책(獻策)한 문장 속에 <비언지왈(鄙諺之曰)>이라고 전제한 다음 표제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시부터 널리 사용되어 왔던 말인 듯하다. 그 의미는 설명할 것도 없이, 앞에 가던 수레가 뒤집어지는 것을 보거던 그런 실수를 다시 하지 않도록 주의 하라는 말이다. 이때 가의가 전차(前車)에 비유했던 것은 한대(漢代) 바로 앞의 진(秦)나라가 저지른 실패이다. 진나라는 시황제(始皇帝)에 의한 강권정치(強權政治)의 무리로 말미암아 불과 2대제에 멸망했다.

문제는 진나라의 실정(失政)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스스로 절검(節儉)하며 정치에 임했고, 그 결과 훌륭한 치적(治績)을 올린 명군(名君)으로 일컬어진다.

당(唐)나라의 태종(太宗)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가 있다. 이 사람이 명군(名君)으로 칭해지게 된 것도 당나라 바로 앞 시대와 수(隋)나라 양제(煬帝)의 실정(失政)을 반면교사(反面教師)로 살아 똑같은 실정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다짐을 하고 정치에 임했기 때문이다.

앞 사람의 실패는 꼭 기억해두라 그보다 더 좋은 교훈은 없기 때문이다.

⑦ 세상에 伯樂이 있고

그런 연후에 千里馬가 있다 (文章軌範)

<백락(伯樂)>은 옛날, 중국에 있었다고 전해지는 말[馬]의 명감별사(明鑑別師)이다. <천리마(千里馬)>는 하루에 천리 길이나 달릴 수 있는 준마(駿馬)이다.

이런 설화가 있다.

어떤 사람이 준마를 팔려고 시장에 끌고 나와서 서있기 사흘이나 되었건만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 그 사람은 백락을 찾아가서 간곡히 부탁하였다.

“저어, 어려우시 겠지만 시장에 나오셔서 제 말 근처를 서성거리시다가 돌아가실 때 한번 더 돌아봐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례는 후하

게 하겠습니다.”

백락은 그 사나이의 부탁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백락이 시장에 나오자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백락은 시치미를 떼고 그 사나이의 말을 한참 들여다 보더니 발길을 돌린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돌아다보았다. 그러자 말 값은 당장 10배나 뛰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천리마는 백락이 있기에만 들어지는 것이라고 한다.

인간도 이와 똑같다. 아무리 재능이 있더라도 그것을 찾아내고 인정해주는 백락을 만나지 못한다면 출세하기란 아주 어려운 법이다.

⑧ 흐르는 물의 淸濁은

그 근원에 있다 (貞觀政要)

여기서 <원(源)>, 즉 근원을 비유한다면 조직 속의 톱(Top)이다. 톱이 성실하다면 그 부하들도 자연스럽게 성실해진다. 그러나 톱의 언행(言行)이 성실치 못하면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부하들에게 감염(感染)되어 간다는 의미이다.

명군(名君)으로 일컬어지는 당(唐)나라 태종(太宗)은 이 말을 인용한 다음 이렇게 말했다.

“흐르는 물이 맑으나 흐리냐는 그 근원이 맑으나 흐리냐에 달려 있다. 군주(君主)와 백성의 관계를 강물에 비유 한다면 군주는 근원이요 백성은 유수(流水)와 같은 것. 군주가 멋대로 성실치 못한 짓을 하면서 신하들에게 성실한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고 기대한다면 그것은 마치 흐려진 근원은 그대로 두고 흐르는 물이 맑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보다 더 무리한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태종이 말하는 군주와 백성의 관계를 기업의 관리직과 부하의 관계로 바꾸어 놓으면 똑같은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부하들이 명령에 따라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기에 앞서, 평소 자신의 언동(言動)을 체크해봐야 하는 것이 바로 톱인 것이다.

⑨ 蓬도 麻中에 나면

퍼지지 못하고 곧게 자란다 (筍子)

봉(蓬), 즉 쑥이란 풀은 땅바닥에 퍼지면서 자란다. 그러나 이 쑥도 마(麻)속에 나면 똑바로 자라나게 마련이다. 왜냐하면 마(麻)는 위로 위로 뻗어올라가며 자라는데 그 속에 나는 쑥도 그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인간도 그와 마찬가지로이다. 환경을 고르고 좋은 교우관계(交友關係)를 맺게 되면 그것에 감화되어 훌륭한 인간으로 자라난다는 말이다.

《순자(筍子)》는 이 말을 인용한 다음 이렇게 덧붙이고 있다.

“군자(君子)는 반드시 토지를 선택하여 거처를 정하고 훌륭한 사람하고만 교제를 한다. 인격의 함양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자를 멀리 하고 올바른 사람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이다.

분명히 말하건대 인간의 성격을 환경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 많은 법이다. 그리고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변경 불가능(變更 不可能)한 것이 아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생각만 있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법이다. 좋고 쾌적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것도 결국에는 자기 책임일지도 모른다. 성공한 사람과 자주 어울리는것도 성공의 지름길이다.

자신의 잠재의식의 나쁜습관에서 벗어나는 길은 좋은 환경에서 깨닫게 되기때문이다.

⑩ 言行은 君子の

樞機이다 (易經)

<추기(樞機)>는 중요한 사복의 포인트이다. 군자(君子)나, 아니냐를 판정하는 포인트는 언행(言行)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된 자는 발언과 행동에 있어서 평소부터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명군(名君)으로 불려지는 당(唐)나라 태종(太宗)이 이것과는 약간 표현이 다르지만 <언어는 군자의 추기이다>라고 전제해 놓은 다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일반 서민들 사이에서도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보복을 당하게 마련이라고 한다. 하물며 군주(君主)된 자이겠는가. 아무리 사소한 실언(失言)을 하더라도 그 미치는 영향은 크다. 서민의 경우와도 비교할 바가 아니다.

당 태종의 말은 실로 명언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발언뿐만 아니라 행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발언과 행동에 대하여 한층 더 자계(自戒)하지 않으면 안된다. 평소의 일상적인 사소한 생활에서도 항상 언행에 조심 몸에 익혀야한다. 언행이란 하루이틀에 좋아지지않는다.